

가성소다, 가격폭등에 수급 초비상

OxyChem · PPG 톤당 65달러 인상 ... ECU 7월 마진 150달러 넘어서

OxyChem, PPG Industries 및 Formosa Plastics이 계약조건 허용 범위 내에서 가성소다(Caustic Soda) 가격을 톤당 각각 65달러 인상한다.

Formosa는 Membrane 그레이드 제품 가격도 톤당 85달러 인상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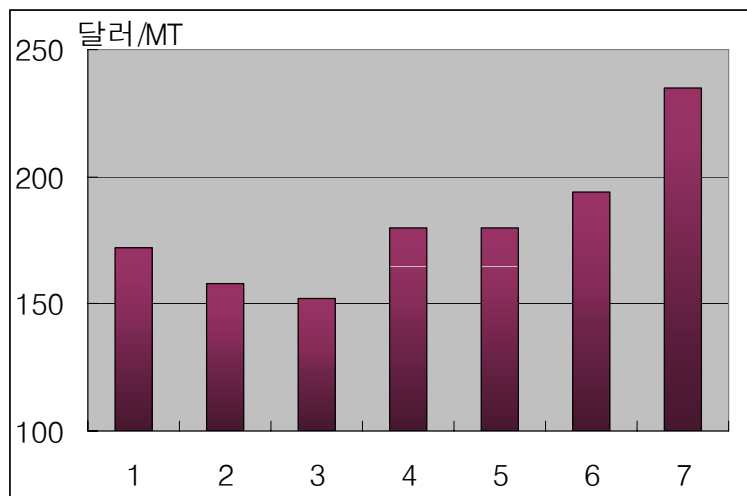
OxyChem, Formosa 및 PPG Industries를 제외한 다른 생산기업들은 아직 가격인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나 곧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그러나 장기적인 공급과잉 이후 최근 가성소다 시장여건이 판매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가격인상이 미리 예견됐기 때문에 큰 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.

CA(Chlor-Alkali) 플랜트 가동률은 수요강세 및 공급부족으로 인해 100%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름시즌의 생산감축 및 염소(Chlorine) 유도제품 플랜트 보수계획으로 볼 때 앞으로 가성소다 수급타이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에 OxyChem은 가성소다 수요강세에 따라 플랜트 정기보수를 2004년 말로 연기했다.

미국 ECU의 계약가격 추이(2004)



† US Gulf 기준

자료) CW Research

염소 및 가성소다 가격상승과 함께 ECU(Electrochemical Units) 가격이 2004년 7월 톤당 115달러 급등하면서 생산기업들의 마진도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, ECU 마진은 2004년 4월 제로에 가까웠으나 7월 톤당 150달러를 넘어서었다.

가성소다 가격이 FOB 톤당 170-190달러로 95달러 폭등하고 염소가격도 톤당 285-315달러로 20달러 급등하면서 ECU 가격도 폭등세를 나타냈다.

CMAI에 따르면, 2004SS에 이어 2005년에도 신규 생산능력 부족 및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가성소다를 비롯한 염소 전 계열 제품 마진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2004/09/15>